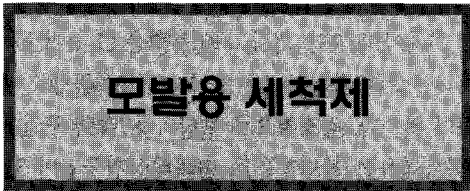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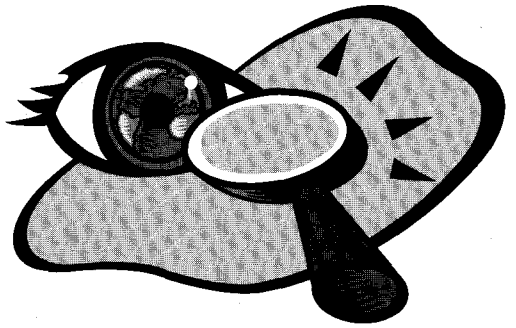


그것과 그들은 누구인가



최 근들어 공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역사의 뒷
장으로 지취를 감추기 시작한 모발세척용 샴
푸. 그러나 이 샴푸도 세계적인 발명품으로 일본의 여
류 중소기업인 '다케우치 고도에'를 중견기업인의 대
열에 올려 놓았다.

다케우치는 양털 세척액을 제조·판매하는 작은 중
소기업을 운영하는 열성 주부였다.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책임도 잊지 않은 현모양처형 기업인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양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녀의 사업도 활기를 띄었다.

양털은 깨끗이 세척하여 오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척액은 생산되
기가 무섭게 팔려 나갔다.

그녀의 양털 세척액 공장은 원료를 혼합하는 혼합기계와 혼합된 완제품을 담아 포장하는 몇 명의
공원이 전부. 그녀는 공장관리와 영업활동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은 피로 속에서도 즐거움이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정주부로서 손색이 없었고, 낮이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으로서, 퇴근 후면
또다시 가정주부로서 완벽하게 임무를 해 내는 그야말로 슈퍼우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돌같이 단단한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것을 본 다케우치의 머릿속에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다.

'양털처럼 물로 된 세척제로 감는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녀의 머리는 급속하게 돌아갔다.

'그래, 가능한 일이야.'

그녀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양털 세척액의 성분을 분석해 보았다.

세척력은 손색이 없었지만 문제는 인체에 해로운 소량의 독성이었다.

"독성을 제거하고 향료만 첨가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다음 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전문서적 속의 지혜만으로도 독성제거 및 향료첨가는 가능했다.

"모발용 세척제 탄생!"

샴푸의 발명을 알리는 기사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샴푸는 생산되기가 무섭게 팔려 나갔다.

다케우치가 중견기업인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레이더

2 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승리에 큰 몫을 한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한 물체탐지장치로 영국의 윌슨 와트를 중심으로 한 레이더 연구진에 의해 발명된 것이다.

1943년의 어느 날, 영국 공군성에 소속된 과학 연구부의 윈페리스 연구부장실에 연구부원인 로가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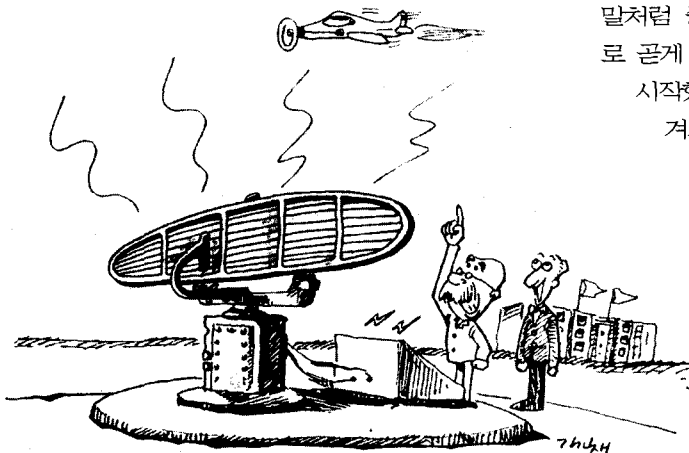
“윌슨 와트 박사로부터 온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어서 이리 주게.”

윈페리스 박사는 로가 들고 있던 큰 봉투를 가로채듯 받아들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한참 읽고 난 윈페리스 박사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만으로는 살인광선의 발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지.”

윈페리스 박사의 침울한 표정을 본 로는 와트 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덧붙여 전했다.



“저, 박사님. 그런데 와트 박사께서는 전파로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비행기가 어디로 날고 있는지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와트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요?”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파를 이용하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는 어느 새 흥분한 어조로 계속 말을 했다.

“박사님, 이것이 성공하면 영국 영공에 침입한 적기는 모두 발견되어 격추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의 영공 방위는 거의 완전해질 것입니다.”

얼마 후 영국 공군성은 비밀리에 완성된 레이더의 실험에 착수했다. 노잔프턴이라는 마을의 도로 위에 포장을 친 평범한 트럭 한 대가 고장난 듯이 서 있었다. 바로 이 트럭의 포장 속에는 복잡한 장치를 한 기계들과 함께 와트 박사를 비롯한 연구자들, 그리고 공군성 소속의 장교들이 긴장한 채 기계를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동시에 브라운관의 옆에 놓인 발신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전파는 안테나를 통해 사방으로 발사되어 갔다. 얼마 후 틀림없는 비행기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 때 와트 박사가 “됐어. 붙잡았어.”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바로 그 때 브라운관의 가로로 곧게 뻗은 빛 위에 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곡선은 조금씩 가운데 쪽으로 옮겨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발사된 전파가 실험용 비행기에 닿아 다시 반사되어 기계로 돌아온 증거였다.

와트 박사를 비롯한 레이더 연구팀은 연구를 거듭한 결과 1936년 1월에는 120킬로미터 떨어진 먼 하늘에서 비행하는 비행기의 동작을 포착하는 레이더를 만들게 되었다. <ㄱ>

발독 9910